

계 영 희 (고신대학교)

중세 유럽의 수학과 미술

본 연구에서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 초기 기독교 미술인 카타콤의 벽화, 동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화, 중세 침체의 늪으로 빠진 서 로마제국의 미술을 비교하고 그 이유와 시대적 배경에 주목한다. 기독교의 교세가 날로 확장되었고 도시가 발달했던 13세기에는 대성당 건축이 활발하여 놀라울만한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크게 남기는데 기여를 했다. 따라서 기독교 미술만이 중세 미술의 주된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술품을 통하여 중세가 교회/세속, 성/속으로 이분되었던 이원론적인 사회였음을 보인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에서는 여성/남성의 위치가 반대로 주군/가신의 위치로 묘사된 미술품 등이 발견된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가 억압되었고 기독교의 교리를 편협되게 왜곡시킨 경직된 중세의 사고는 고대 그리스와 매우 대조적인 생명력 없는 중세 수도원 수학을 생산한 그 배경과 이유를 살핀다.

장 경 윤 (건국대학교)

ICT 시대의 수학교육

현행 제 7차 수학과 교육과정문서는 수학교육에 ICT 적극적인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경향이다.

본 연구는 수학에서 ICT의 활용 방향, 활용 내용 영역, 방법을 교수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논의할 것이다.

ICT의 도입이 수학교육과정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관하여, 그리고 ICT를 도입하려 할 때의 전제 조건과 교수학적인 전반적인 고려사항을 논의한다.